

통일선보

무소속대변지

제38호 [루게 제2664호]

주체 110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음력 8월 12일

철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정식동지, 진일호동지와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하였다.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들이 시험발사에 참가하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인 장거리순항미사일개발사업은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

체계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어왔으며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시험들과 수십차례의 발동기시험, 각종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위력 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되어온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의의를 가진다.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령도와 령해상공에 설정된 타

원 및 8차형비행궤도를 따라 7, 580초를 비행하여 1, 500km계선의 표적을 명중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개발한 타빈송풍식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

총평 무기체계운용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보되었다.

박정천동지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하였다.



박정천동지는 오늘의 이 성과는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증시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과이며 당 제8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해 떨쳐나선 국방부문에서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의 무진장한 능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파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국방과학부문에서 나라의 방위력,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분투하여 우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하고 전망적인 전쟁억제력목표달성에서 계속되는 성과를 쟁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정천비서 철도기동미사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 지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철도기동미사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을 지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와 군수공업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지도간부들이 철도기동미사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기동미사일련대를 조직하였다.

검열사격훈련은 처음으로 실전도입된 철도기동미사일체계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새로 조직된 련대의 전투준

비태세와 화력임무수행능력을 불의적으로 평가하며 실천행동절차를 숙달할 목적에 진행되었다.

철도기동미사일련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이동하여 800km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하였다.

철도기동미사일련대는 철도기동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임무에 따라 조선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박정천동지는 철도기동미사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적위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박정천동지는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전국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

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으로 된다고 하면서 군대와 해당 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맞게 이 체계를 유효하게 리용하기 위한 전법방안들을 부단히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 빠른 기간안에 철도기동미사일련대의 실전운영경험을 쌓고 철도기동미사일련대로 확대개편할데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박정천동지는 우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군대현대화토론편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실전도입한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완전히 새롭고 다채로운 상상밖의 열병식》

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과 언론들의 찬탄의 목소리

공화국창건 73돐을 경축하여 성대하게 진행된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은 남조선의

《김정은총비서의 미소로 시작되고 미소로 끝났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주목되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종일관 매우 만족한 웃음을 담으시고 열병식분위기를 경축의 양상으로 이끌어간것이라는 감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김정은총비서가 꽃다발을 드리는 남녀어린이를 다독이면서 그들의 팔을 끼고 환히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가장 돋보였고 주석단에 올라 밝은 표정으로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김정은총비서는

체육인종대의 행진과정을 생안경으로 살피면서 환한 웃음을 짓는가 하면 청년학생종대가 등장하였을 때에는 련이어 엄지손가락을 틀어올리면서 사기를 북돋아주었으며 사회안전군특명기동대종대가 말을 타고 등장하였을 때에는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만족한 표정을 보였다. 특히 열병식이후 진행된

《웅근 하나의 예술작품》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은 명정부러가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으로

야회가 마무리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석단을 향해 달려나오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칠 때에도 김정은총비서는 환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 화답하였다.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총비서의 미소로 시작되고 미소로 끝났다.

그러면서 열병식 전기간 김정은총비서의 시선은 열병식에 참가한 북주민들을 향해있었다. 김정은총비서의 환한 미소는 이번 열병식에 대한 민족의 표시인 동시에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끄떡없다는것을 과시한것이라고 토로하였다.



서 새롭고 지난 시기의 민간 무력열병식들과는 달리 도별로농직위군은 물론 전체 비정규무력을 총집결, 출연시킨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북의 열병식력사상 새번째로 되는 심야열병식으로서 독특하고 화려한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것이다.

—시작부터 화려한 축포발사와 악대연주, 긴장감을 완화하고 친밀감을 주는 락하산병들의 기교강화, 비행기들의 교예비행 등을 통해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연속한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던 과거의 열병식과는 거리가 먼 《축제》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이전 열병식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비상방역종대와 군견수색종대, 농촌기계화초병종

《짧은 기간에 열병식을 준비할수 있는 능력 과시》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후 11개월만에 열리는 세



대와 같은 열병종대, 특히 트랙도르, 소방차와 같은 장비들도 내보내어 열병식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열병종대들의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길일성광장에서는 평양시민들의 다채롭고 화려한 물동이 진행되고 열병행진이후 청년학생들이 음악에 맞추어 1시간동안 무도회를 열었으며 깊은 한밤중 열병식참가자들에게 대한 주민들의 연도환영까지 진행한것은 열병식이 아니라 웅근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은 성대한 《축제》를 방불케 한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은 완전히 새롭고 다채로우며 상상밖의 성대한 열병식이었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창건 73돐을 맞으며 성대히 개최함으로써 열병식개최방식의 판례를 깨버렸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언제든지 동원될수 있게 만단의 동원태세를

《특유의 위엄을 과시한 열병식, <자력갱생 열병식>》

—이번 열병식에서 첨단전략무기, 전술무기들을 공개할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규모나



적의미는 매우 크다. 규모는 작지만 대신 수백만명에 달하는 각 분야의 모든 비무장장령을 대표하는 로동적위군종대가 다 참가함으로써 북이 정규군은 물론 민간무력도 언제든지 싸울수 있게 준비되었다는것을 대외에 과시하였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 거대한 전략무기들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122mm 방사포와 첨단반땅크미사일 《불세》로 무장한 로동적위군대들이 등장하고 트랙도르와 같이 유사시 무장장비를 전환할수 있는 현실성있

《세계유일의 <COVID-19> 청정국》

남조선언론들은 현재 변이비루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방역선전국》으로 자처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도 확진집중을 하고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있는것과 달리 북은 이번 열병식에 마스

는 농기계화종대가 나갈것은 자력갱생의 힘으로 온 나라를 요새화하고 전민을 완전무장시킨 군사강국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준것이다. 이번 열병식은 100%첨단저격무기로 무장한 수백만명의 병력과 직장, 단위별로 편성한 특수위군까지 가지고있는 북민간무력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첨단전략무기들이 참가하였던 지난 시기의 대규모열병식과 완전히 다른 특유의 위엄을 과시한 열병식, 《자력갱생열병식》이다.



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는 북이 이번에 경축행사장들에서 방역자신감을 과시한것은 국제사회에 밝힌것처럼 전염병환자가 한명도 없으며 악성전염병류입차단에 완전히 성공하여 《세계유일의 코로나청정국》이 되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본사기자 김정혁